

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

- 1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
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께 때 함께 하소서
- 2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
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
- 3 세상의 영광 나 안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
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
- 4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
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

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

-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
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
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
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
-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
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
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
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
-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
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
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
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

기도 담당

4/16(화)	4/17(수)	4/18(목)	4/19(금)	4/20(토)	4/22(월)
김민수1 안수집사	고성호 안수집사	김인호2 안수집사	이윤식 안수집사	박성원2 재직안수집사	박윤일 안수집사

2024년 4월 20일(토)

이른아침예배

인도 : 장지훈 목사

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
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
찬 송 484장 다 같 이
기 도 박성원2 재직안수집사
성 경 봉 독 에스겔 17장 22~24절 인 도 자
찬 양 참 아름다워라 새벽찬양대
설 교 『흑암 중에도 빛을 꿈꾸시는 하나님』 장지훈 목사
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
찬 송 301장 다 같 이
축 도 설 교 자

📖 오늘의 말씀 <에스겔 17:22~24>

- 2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
- 23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
- 24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

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

2024년 4월 20일(토)

사랑과 은혜의 하나님!

지난 한 주간도 우리보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, 거룩한 주일을 하루 앞 둔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, 조금의 희망도 꿈꿀 수 없던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, 여전히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꿈꾸시는 하나님을, 오늘의 우리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.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, 언제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넘어 그 보다 더 우리를 더 크게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.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! 새문안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, 교회가 교회되도록 신실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담임목사님과 항상, 늘 함께 해 주시고, 허락하신 모든 일정과 사역들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. 당회와 제직들, 교역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은총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가게 하시고, 특별히 허락하신 주일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성도들 모두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내일이면, 새 예배당에서 입당감사예배를 드린 지 5년이 됩니다.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사, 약속 해주신 날, 모두가 헌당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.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!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. 나라 안팎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,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셔서, 이 땅의 여러 모양의 분열과 분쟁은 사라지며,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에스겔 시대에 선포하셨던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셔서, 각종 새가 깃들여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.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